

연예뉴스 HOT 3

청와대 “대통령 특사 BTS 활동비 정산”

그들 방탄소년단이 최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활동했지만 관련 여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른바 ‘열정페이’ 주장에 청와대가 9월 30일 “이미 정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9월 19~23일 유엔본부 등 미국 순방과 관련해 “특사단의 항공과 체류 비용 일부를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진행해 이미 완료했다”면서 “정부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하이브가 사전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모희 의원은 외교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방탄소년단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2017년 2월 28일 제1회 아시아영화엑셀런스상 수상



이병헌

배우 이영현이 아시아필름어워즈의 아시아영화예술포럼상을 받는다. 한국배우로는 처음이다. 이 상은 부산·홍콩·도쿄 국제영화제가 2013년 설립한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가 주는 것으로, 아시아영화와 문화 전반에 걸쳐 뛰어난 성취를 거둔 아시 수여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9월30일 데뷔해 작품에 대한 뛰어난 안목과 뛰어난 캐릭터를 완성, 강인한 생명력을 평가받았다. 시상식은 6일 막을 올리는 시간인 8일 오후 8시 해운대 파다라시 열린다.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경찰 조사



노엘(장용준)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열은 9월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남동포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다른 차와 충돌한 뒤 현장 충돌한 경찰차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다. 앞서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퀴치기'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 취소됐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화천대유 사건’ 연루 의혹 박종훈 회사, 자금 대여사와 얽힌 의문

일상실업-엠에스비티, 회계법인도 똑같았다

사건열쇠 켜 정모 회계사도 소속돼
2014년 이후 두 회사 같은 건물에
실제 어떤 관계인지 궁금증도 증폭
당사자인 박중훈은 침묵으로 일관

배우 박종훈(55)이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체 일상실업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초기 투자사 엠에스비티에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두 업체의 회계법인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계법인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소속 법인으로 알려졌다. 또 일상실업과 엠에스비티는 2014년 이후 같은 소재지에 자리했다.

9월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일상실업과 엠에스비티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6년 이후 두 회사의 회계감사를 A회계법인이 맡았다. A회계법인은 2016~2019년 일상실업, 2016~2020년 엠에스비티의 감사보고서를 각각 작성했다. 이 기간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상실업은 엠에스비티에 74억원을,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에 각각 131억원을 빌려줬다. 화천대유가 2015년 빌려준 자금을 엠에스비티의 초기 사업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에스비티는 2017년 11월30일 화천대유 대여금을



배우 박종훈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일상실업이 화천대우의 투자사 엠에스비티에 자금을 빌려준 가운데 두 회사의 소재지가 2014년 이후 겹쳐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오른쪽 사진 위부터 엠에스비티와 일상실업의 법인등기부등본.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illegible]

람 용

[illegible]

투자금으로 전환했고,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A11BL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당사가 (2015년부터)투자한 사업”이라며 “제3순위 수익권자로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약 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일부 언론은 최근 각종 의혹을 불러 일으킨 '화천대유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히는 정모 회계사가 A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보도했다.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자로 알려졌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사

케이팝 시장은 무한확장중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위부터)의 최신 앨범은 물론 과거 선보인 앨범까지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케이팝 팬덤의 유입”을 보여준다.

뉴시스·사진출처 | 방탄소년단 트위터

방탄소년단, 엑소, 블랙핑크 등 '월드스타'급 아이돌 3세대에 이어 최근 케이(K)팝 4세대가 가파른 성장세를 그리면서 이들의 최신 앨범(신보)은 물론 과거 내놓았던 앨범(구보)의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 케이팝 시장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 나온다.

최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의 가온차트에 따르면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이전에 내놓았던 앨범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최신 앨범과 함께 과거 앨범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백워드 스피로버(Backward spillover)’ 현상이다.

가온차트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피지컬(실물) 앨범 판매량 40위권의 1~3위권 판매를 집계해 따르면 구보는 2020년까지 6~8%를 차지했지만 올해에는 14%까지 늘어났다. skt소년단의 경우 데뷔 앨범인 '2 Cool 4 School'을 2013년 선보인 이후 최근까지 월별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 처음 발매 당시와 비슷한 규모의 월별 판매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온차트 김진우 수석연구위원은 "방탄소년단의 신규 팬덤이 계속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면서 "방탄소년단의 '아티스트 라이프' 사이클이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BTS등 신보 따라 예전 앨범 불티
케이팝 새로접한 해외 팬들 한몫

이와 함께 NCT DREAM, 에이티즈, 엑소,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더보이즈 등도 구보 팬대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각 아티스트들에게는 안정적인 매출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우 수석연구위원은 “새롭게 케이팝 아티스트를 접하게 된 전 세계 팬들이 해당 아티스트의 구보를 찾아 구매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 세계 케이팝 시장은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여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